

장애인 시설 문제점 다수 개선 대학 본관·학생회관 접근성은 아쉬워

석예진 기자 stpk02@khu.ac.kr

【서울】‘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신장을 위해 대학별 캠퍼스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평가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다. 2003년 첫 시행 이후 2005년부터 2020년에 걸쳐 3년 주기로 실시됐으며 평가항목은 ▲선발·지원 체제 ▲교수·학습 ▲시설·설비의 3개 영역(만족도 영역은 가산점 2점)으로 나뉜다. 지난 2월 게재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예비조사 연구보고서’ 지표 개정(안)에 따르면, 3개 영역 중 시설·설비 영역이 배점 40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설·설비 영역은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 및 기타시설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이에 우리신문은 곧 시행될 2023년 실태평가를 앞두고 서울캠퍼스(서울캠) 시설·설비의 현황을 돌아봤다.

지난 2021년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발표 후 우리신문은 서울캠 내 장애인 시설·설비 현황을 돌아본 바 있다. (관련기사: 서울캠 장애인 통행권 새로운 검토 필요 “배려 아닌 당연”/대학주보 제1673호(2021.06.07.)) 해당 평가 결과 양 캠퍼스는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서울캠의 경우 2014년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후 두 차례 연속 한 등급 하락된 ‘우수’ 등급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서울캠 내 장애인 시설·설비는 여럿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언덕길 보도 상태 ▲점자블록 부재 구간 ▲출입문 경사로 단차 및 흠 ▲건물 내 승강기 부재로 인한 시설 접근성 문제 등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

교내 보행통로 세심한 주의 필요

우리학교는 가파른 언덕길이 통행로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비장애인에게도 버거운 몇몇 언덕길은 보행 장애인이 통행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 이에 지난해 서울캠 총학은 교내 외 배리어 프리맵을 제작 및 배포해 보행 장애인의 이동 가능 경로를 가시화한 바 있다. 지도에 따르면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언덕길이 캠퍼스 곳곳에



교내 장애인 시설 설비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내 보행통로 ▲출입문 접근로 ▲승강기 부재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최예령 기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보행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동 도중 길이 끊기는 것과 다름없다.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우리학교 학생의 경우, 소속 대학 건물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학교 지형이 산속에 있어 보행 장애인의 경우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언덕길 중에는 보도 상태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학생회관에서 경희중고를 지나쳐 세화원 맞은편 교문으로 내려가는 긴 언덕길에는 보도블록이 빠지거나 깨진 곳이 있었으며, 보도가 평평하지 않고 한쪽이 꺼져있는 지점이 있었다. 특히 시각 장애인을 위한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과 같은 점자블록은 형태 및 연결성 등이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교내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거의 끊김이 없이

잘 이어져 있었으나, 점자블록 자체가 훼손된 곳이 일부 발견됐다. 또한 ▲네오르네상스관 계단 하단 ▲청운관 옆 노란 건물(경희 전면 프라자 문화복지시설) 계단 상·하단은 감지용 점형블록이 부재해 계단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돼 있었다.

출입문 접근로 여럿 개선, 그러나 미흡한 점도 있어

건물 출입 면에서 지난 실태평가 이후 ▲배수로 설치 ▲자동문 설치 ▲경사로 앞 흠 보수가 이뤄지면서 사정이 나아졌다. 지난 2021년 6월 기준 경희대학 유일한 출입구 경사로 앞에는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이 불가능했다. 호텔관광대학 본관 주 출입구 역시 무거운 여닫이문으로 돼 있어



경희대학교 배리어프리맵 (Barrier-Free Map) showing various campus locations with icons for accessibility features like ramps, elevators, and wheelchair paths.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려웠다. ▲문과대학 경사로 ▲온실에서 생활과학대학으로 연결되는 경사로 ▲생활과학대학 흡연구역 옆 경사로에도 흠이나 단차가 즐비해 있어 휠체어로 통행하기에 위험했다. 특히 생활과학대학 흡연구역 옆 경사로 부근에는 빗물이 고일 정도의 깊은 흠이 패여 있었다.

이에 당시 서울캠 총학이 주관한 배리어프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희대학 경사로 앞에 모래주머니 대신 배수로가 설치됐다. 이듬해에는 호텔관광대학 본관 주 출입구에 무거운 여닫이문 대신 자동문이 설치됐다. 생활과학대학 흡연구역 옆 경사로에 깊이 패 있던 흠도 지금은 메워진 상태다.

그러나 아직 개선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문과대학 출입문 옆으로 나 있는 경사로는 일부 타일이 깨져

있고, 온실에서 생활과학대학으로 연결되는 경사로는 심각한 단차와 흠이 여전히 존재한다. 심지어 노천극장 주차장에서 오비스홀로 연결되는 경사로는 취재 당시 불법 주차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대학 재학생 A 씨는 “오비스홀 경사로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는 경우를 자주 봤다”며 “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매번 같은 차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내부시설 접근성 개선 필요

장애인 시설 및 설비 문제는 건물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몇몇 교내 건물은 내부 경사로나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건물 내 경사로나 승강기가 부재한 경우 보행 장애인은 해당 건물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는 위생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한 예로 대학 본관은 장애인 화장실이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지만, 승강기는 물론 내부 경사로도 없다. 중앙계단 우측에 있는 1층 화장실 역시 입구에 높은 단차로 계단이 있어 휠체어 이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본관 관리실은 “장애인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사실상 휠체어 이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태다”고 설명했다.

학생회관의 경우 보행 장애인이 건물 자체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 학생회관은 건물 특성상 크라운관으로 향하는 계단을 거쳐 가야 한다. 해당 계단은 경사가 가파른 편으로 외부 경사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학생회관은 8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사로나 승강기가 따로 없다. 이에 서울캠 학생지원센터는 현재 크라운관으로 올라가는 한 층짜리 승강기를 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다면 2023년 내로 예산 편성을 받아 공사 완공까지 마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이 성사될 경우 휠체어 이용자도 학생회관 1층에 위치한 상담실 및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시설 및 설비 문제 전반에 대해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교내를 점검하고 있으며 요청사항이 접수되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본관 건물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경사로나 승강기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